

1995年度 建設景氣 展望 및 國內經濟 展望

1994년 우리 경제는 설비투자과 수출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국면에 진입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8.0% 내외의 실질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비교적 건실한 모습을 보여 도약의 기쁨을 다졌다고 할 수 있다.

건설경기는 94년초부터 급격한 하강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 빠른 회복세로 반전되어 6월중에 100.2로 올라선 후 8월에는 100.9로 건설경기가 확장세로 접어들었으나 그 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1995년의 국내경제전망과 건설경기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1995年度 國內經濟展望

[1] 國內經濟의 對內外的 狀況

(1) 對外的인 側面

① 1995년도 선진국의 경제

일본과 독일의 경기회복속도가 가속화되어 전반적으로는 1994년도보다 약간 높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미국은 고용증대 등으로 민간소비가 활기를 띠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지만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금융긴축으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인플레이 진정을 위한 금융긴축에도 불구하고 元貨의 평가절하기조 및 기간산업 확충을 위한 외자유입확대 등으로 1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의 경우에는 엔高 등으로 설비투자가 저조할 것이지만 민간소비의 회복, 정부지출 확대, 對아시아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② 국제금리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기의 호조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 및 인플레이 기대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나 평균적으로는 1980년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설비투자가 저조할 것이나 민간소비 회복, 정부지출 확대, 對 아시아 수출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의 美·日 무역불균형 심화, 미국의 인플레이 우려에 따른 채권 및 주식시장의 불안감 재확산 등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貨는 미국의 금리상승과 함께 점차 약세로 반전되어 달러당 평균 105엔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③ 원유가

걸프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원유가는 북해유전의 생산증대 등으로 1993년 수준인 배럴당 연평균 16달러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④ 비철금속

세계경기의 회복과 러시아의 생산감소 및 동유럽의 수출 감축 등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

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예상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우리 경제는 해외성장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지만 원자재 가격상승은 물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對內的인 側面

대의적인 개방이 확대되면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 경쟁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실물시장의 개방이 진전되고 1996년 OECD가입에 앞선 외환, 자본자유화에 따라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유화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확대로 원貨는 평가절상 압력을 받을 것이며, 원貨의 평가절상은 수출이 가격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로부터의 통화공급 확대는 국내물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소지가 크며 한편으로는 통화당국의 통화운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6월중에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는 총수요관리를 어렵게 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지역개발 사업이 활발히 검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안전성장이냐, 거품성장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

우리 경제는 「안전성장」이나, 「거품성장」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에 서있다. 1년반 정도 지속된 빠른 경기회복이 하반기에는 頂點에 이르리란 전망이 우세한 만큼 고속 성장의 여파로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들을 미리 잘 다스려 바닥을 다져나가야 할 시점이다.

또 그간 주도해 온 왕성한 투자가 頂點을 지나 상대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는 시점이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일정과 맞물릴 때 자칫 정치논리가 부동산 경기를 건드리는 등의 무리한 경제정책을 강요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민간소비는 주변 여건상 더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어있고,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세금우대저축폐지도 소비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엔高로 인한 반사 이익을 지난해 만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다 원화 절상, 국제 원자재값 상승, 국내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 역시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그러나 올해 경제의 최대 현안은 뛰니뛰니 해도 物價安定이다.

농산물 값은 수입 확대로 누른다 하더라도 공산품 값은 임금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더이상 묵기가 어려우며,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이 탄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서비스 분야도 가격인상 압력이 커질 듯 하다.

1995年度 國內建設景氣展望

국토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물가동향과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완화폭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활황세를 전망하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공사 수주액이 전년대비 18.9% 증가하고 해외공사 수주액은 30.8% 증가하여 전체 건설수주액은 20.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94년 건설투자는 작년대비 6.7%가 증가하고 1995년도에는 94년보다 다소 많은 7.9%가 증가, 총투자액은 54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주거용건축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로 재건축 자투리땅을 이용한 빌라와 연립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어 투자는 94년도보다 2.4% 증가하고, 비거주용은 경기호조에 따라 투자는 9.8%가 건축허가면적은 6.1%가 각각 신장될 전망이다.

[1] 공공부문

94년도보다 11.8% 증가한 21조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방자치와 관련된 각종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투자가 위축될 것이 우려되나 중앙정부 부문에서는 정부예산안중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전년대비 19.5%가 증액된 총14조1천억원의 규모가 반영되어 있어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민간부문

부동산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주택분양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업용과

구 분	단 위	93년		94년		95년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건설공사수주액	억원	434,021	29.5%	499,000	15.0%	583,600	17.0%
민 간		268,236	38.4%	311,000	15.9%	373,400	20.1%
공 공		165,785	17.35%	188,000	13.4%	210,200	11.8%
건 축		300,151	38.3%	345,250	15.0%	405,200	17.4%
토 목		133,870	13.4%	153,750	14.9%	178,400	16.0%
건설공사기성액		409,652	3.6%	471,300	15.0%	566,600	20.2%
건축허가면적	m ²	117,790	24.5%	118,500	0.6%	136,070	14.8%
주 거 용		69,300	26.7%	65,420	-5.6%	78,660	20.2%
비주거용		48,490	21.4%	53,080	9.5%	57,410	8.2%

업무용 빌딩의 건축도 94년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하고 재건축과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형빌라 등의 건축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여 주거용건축허가는 다소 회복세가 예상된다.

1995年度 海外建設 전망

95년 세계건설시장규모는 94년의 2조9천2백38억 달러 대비 5.1%가 증가한 3조7백2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건설협회 최재열 선임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신문 특별기고에서 해외발주규모는 94년의 1천7백6억 달러에서 95년에는 94년 대비 10%가 증가한 1천8백7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95년에는 UR건설시장개방으로 해외건설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고는 95년도에 주로 한국 해외건설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과 아시아 주요지역의

공사발주 여건에 대하여 해외건설협회 최재열 선임연구원이 대한전문건설신문에 특별기고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 중동지역

95년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6개국에서 수주활동이 예상되지만 수주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9개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란, 레바논,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리비아, UAE, 요르단 등의 국가를 지정할 수 있는데 94년 수주액 22억달러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걸프전쟁후 전후복구사업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및 레바논 지역에서의 공사발주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수주활동은 활발히 전개되어 40억 달러 이상의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아시아 지역은 활발한 역내 경제성장에 따른 도로, 주택, 항만, 전력 및 시멘트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발주에 국가재정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다.

권역별	94	95	수주대상국가
중 국	2,190	2,290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란, 레바논, 쿠웨이트, 카타르, 이집트, 리비아, UAE, 요르단
아 시 아	3,750	4,010	방글라데쉬,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네팔, 파푸아뉴기니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인도, 중국, 라오스, 베트남, 홍콩, 대만
태 평 양 (북미포함)	360	400	미국, 괌도, 사이판, 마이크로네시아, 마셜군도, 팔라우
아프리카	100	140	나이지리아, 가나, 카메룬 보츠와나, 에리트리아
유 럽	140	200	러시아, 헝가리, 독일, 우크라이나, 카자흐, 우주베키스탄
중 남 미	-	100	멕시코
계	6,540	7,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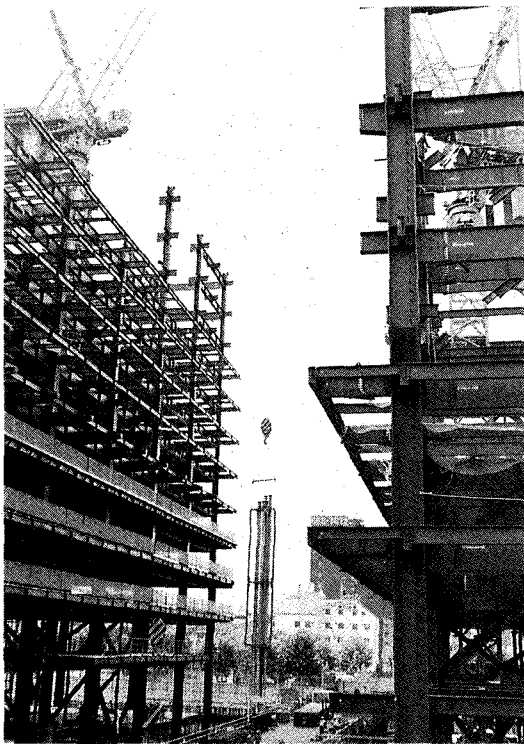
[3] 전문건설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문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려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해외건설 진출과 관련 가장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정보부재를 지적하고 있는데, 해외건설협회 또는 당협회 경

제연구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우 수주대상지역의 대부분이 개도국인 점을 감안할 때 개도국의 경제활동은 정치적인 상황과 일치한다는 점을 감안, 95년 건설수주액은 WTO체제 출범과 함께 이외의 호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해외건설이 활기를 띠면서 해외건설업의 신규진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해외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는 모두 83개사로, 지난 93년의 27개사보다 무려 20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외건설업 설비 12개사 참여

해외건설협회는 이에 대하여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가 74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해외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등 등록요건완화와 더불어 건축공사업 전문공사업 등의 업종이 해외건설업에 추가됐기 때문에 신규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해외건설업에 신설된 전문건설업에는 모두 26개사가 등록했으며, 설비는 12개사가 신규로 진출했다.

지난해 설비부문의 해외건설업 등록업체는 다음과 같다.

- 강우기업(설비, 전기) □대경기계기술(설비) □대아공무(설비) □대일공무(설비) □배영설비기공(설비) □정진공영(설비) □정풍개발(설비, 토공) □태광기건(설비) □한전기공(설비, 전기) 등 □(주)금화기공(설비) □정일건설(설비) □석원산업(설비)